

2014 세계노인복지지표: 주요 요약

노르웨이에 사는 프레드(Fred)는 이제 막 70세가 되었고 탄자니아의 자이나(Zaina)는 최근 61세 생일을 맞이하였다. 어떻게 이들의 삶을 비교할 수 있을까? 프레드는 보건서비스 및 대중교통 혜택을 지원받고 국가와 회사에서 연금을 수령하며 80세 중반까지 살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에 자이나는 연금에 대한 아무런 기대 없이 70세 중반까지 살 것이다. 마비증세가 있는 남편과 두 조카를 부양하기 위해 작은 도넛 가게를 운영하고 HIV에 걸린 사람들을 위해 봉사활동까지 하면서 말이다.

많은 국가들에서 60세의 기대수명은 20세기 중반과 비교하여 적어도 1/3 이상 늘어났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과거에 삶은 어땠는지에 따라 매우 다른 노년기의 삶을 경험한다. 일부 노인들은 과거보다 더 건강하고 안락한 삶을 사는 반면, 수백만의 노인들의 삶은 여전히 절망적이다.

2014년도 세계노인복지지표는 노인의 사회적, 경제적 복지 정도에 따라서 96개국의 순위를 매겼다. 이는 전 세계 60세 이상의 노인인구의 91%, 즉 10명 중 9명에 해당하는 노인 인구에 대한 지표가 된다.

저소득 및 중간소득 국가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중 겨우 1/4만이 연금을 받고 있다. 노인에게 최소한의 비기여 공적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재정적 자립에 대한 요구뿐만 아니라 노년기의 품위 있는 삶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이다.

지표는 연금, 교육과 고용의 기회, 무료 건강관리 및 대중교통 혜택과 같은 노년기의 삶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승자와 패자

올해 지표를 보면, 노르웨이(1위)는 노인이 가장 살기 좋은 나라이다. 상위 10개국에는 일본(9위)과 서유럽, 북미 국가와 호주가 올랐으며 최하위는 아프가니스탄(96위)이 차지했다.

최하위그룹에서는 소득보장과 건강상태 영역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베네수엘라(76위), 세르비아(78위), 터키(77위)를 포함한 사하라 사막 이남지역의 아프리카와 아시아 국가들이 포함되었다.

우리는 지표를 통해 경제성장만으로는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없으며 고령화에 대비한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득보장 정책과 관련하여 멕시코(30위)는 터키보다는 덜 부유한 국가지만 지난해와 비교하여 26위나 상승하였다.



Marius Arnesen/Flickr

올해 지표를 보면 노인이 가장 살기 좋은 나라는 노르웨이(왼쪽)였으며 최하위는 아프가니스탄(위)이었다.



Harald Groven/Flickr

연금 혁명

장수의 삶은 인류 발전의 산물로써 전 세계의 노인인구 증가에 기여했다. 그러나 많은 노인들이 부담으로 여겨지거나 소외되고 있다. 이미 전세계 인구의 약 12%인 8억 6천 8백만 명은 60세 이상 노인이며, 2050년에는 60세 이상 노인의 인구는 20억 2천만 명으로 20억 3천만 명의 15세 이하 유소년 인구와 비슷해질 전망이다. 사실 모든 국가가 일종의 연금제도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년 동안에는 새로운 조세 기반 비기여 공적연금(이하, 비기여 공적연금)이 확대되었다. 현재는 100개 이상의 국가에 도입되어 일부 극빈층 노인에게는 정기적인 최저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자리잡았다. 올해 지표에서는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연금수급률이 확대된 것처럼 비기여 공적연금이 가져온 변화가 두드러진다. 이는 최근의 국제적 동향을 반영하고 있는데 2009년 중국(48위)이 60세 이상의 지방 거주 노인 1억 3천 3백만명을 포함하는 비기여 공적연금을 도입한 것과 같이 네팔(70위), 태국(36위)도 비슷한 행로를 걷고 있다.

비기여 공적연금의 증가는 연금정책의 우선순위를 바꾸어 놓았다. 역사적으로 연금은 기여연금에 초점이 맞춰져 왔으나 저소득 및 중간소득 국가에서는 이 제도가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하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정규직으로 불안정한 일자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공적연금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들의 소득은 노후자금을 저축하기에는 턱무니없이 낮았으며 극빈에서 벗어난 일부 차상위계층만이 연금을 위한 저축이 가능했다.

멕시코와 페루(42위)는 최초로 이런 변화를 겪었다. 1943년 처음 기여연금이 멕시코에 등장하였으나 멕시코 노인인구의 1/4만이 연금을 수급 받았다. 하지만 지난 몇 십 년 동안 비기여 공적연금제도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현재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9명은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페루에 거주하는 주아나 하우나미 바우티스타(Juana Huamani Bautista, 74세)는 65세 연금 프로그램(Pension 65 Programme)을 통해 비기여 공적연금 수급 자격을 얻어 두 달마다 250 누에보 솔(약 US\$89)을 받게 되었다. 많은 금액은



Adam Jones/Flickr

장수는 인류 발전의 산물이지만 여전히 전 세계 인구의 절반만이 최소한의 비기여 공적연금을 기대할 수 있다.

아니지만 이를 통해 주아나는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게 되었다.

주아나는 “이제는 생활비 걱정이 줄었습니다, 아플 때 아이들에게 부탁하지 않고 스스로 약을 살 수 있으니까요.” 라고 말했다.

정부재정이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까?

비기여 공적연금은 불평등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며 성장에도 일조한다. 유럽연합 내 대부분 국가들에서 현재의 통합형 연금 시스템은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거나, 가난한 이들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등 다른 모든 부분들을 합친 것보다 더 불평등을 감소시키고 있다. 비기여 공적연금은 가계소비를 증가시키면서 빈곤감소에 기여하였다.

저소득 국가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타난다. 볼리비아의 보편적 존중연금(Dignity Pension)은 60세 이상 모든 노인들에게 지급되며 이는 노인이 있는 가정 자녀들의 아동노동을 저하시키고 학교 출석률을 크게 높였다.

결론적으로, 저소득 및 중간소득 국가들이 노인의 기본 소득을 보장할 만한 재정적인 여유가 있을까? 사실상 이 비용은 우리가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적다. 50개국에서 조사한 결과,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에게 평균소득의 20%에 해당하는 연금을 제공할 때 필요한제공되는 보편적 연금을 위한 비용은 최소 국내 총생산의 0.4%(부르키나파소)에서 최대 국내 총생산의 1.8%(중국)의 범위 정도이다.

그렇지만 여전히 전 세계 인구의 절반만 최소한의 비기여 공적연금을 받을 수 있다. 공적연금제도가 이미 시행되는 국가에서도 현 상황을 해소하기에는 연금수급 대상자의 범위가 좁고 금액은 적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더 많은 국가들이 모든 노인에게 적절한 최저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

순위와 결과

	전체 순위와 점수		 소득보장		 건강상태		 역량		 우호적 환경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Norway	1	93.4	1	89.1	16	73.5	1	76.2	4
Sweden	2	88.3	9	82.8	12	75.2	3	65.7	6	79.4
Switzerland	3	87.9	29	76.0	2	81.3	10	58.0	1	83.7
Canada	4	87.5	7	83.2	4	80.3	8	59.7	9	78.9
Germany	5	86.3	15	80.5	11	75.6	5	62.8	11	78.6
Netherlands	6	86.0	5	85.6	13	74.8	11	57.4	5	79.6
Iceland	7	85.3	3	87.5	8	78.2	16	52.8	10	78.8
United States	8	83.5	22	78.7	25	70.1	4	65.0	17	76.8
Japan	9	82.6	31	75.4	1	83.9	12	56.8	21	75.0
New Zealand	10	80.7	27	77.1	9	77.8	6	61.8	30	71.5
United Kingdom	11	80.1	11	82.7	27	69.3	23	46.1	3	81.8
Denmark	12	77.6	18	79.8	33	68.1	20	48.3	14	77.7
Australia	13	76.1	61	52.2	5	79.8	2	70.2	26	72.5
Austria	14	76.0	6	84.6	19	72.7	43	34.1	2	82.7
Finland	15	75.8	16	80.4	21	70.8	30	43.9	18	76.1
France	16	74.8	2	88.0	7	78.3	37	36.3	23	74.2
Ireland	17	74.2	20	79.1	17	73.1	34	38.7	16	77.0
Israel	18	72.2	45	68.1	26	69.8	13	55.3	35	69.6
Luxembourg	19	71.3	4	87.0	10	76.6	54	29.4	19	76.1
Estonia	20	67.7	38	72.4	55	50.0	7	61.8	39	68.1
Spain	21	67.6	41	71.3	3	80.5	56	29.2	22	74.7
Chile	22	67.5	42	70.5	14	74.4	27	44.7	49	66.0
Uruguay	23	65.3	10	82.8	37	63.3	29	44.5	57	63.5
Panama	24	65.0	39	72.3	31	68.7	33	40.2	48	66.4
Czech Republic	25	64.8	13	82.0	47	56.1	28	44.5	50	65.8

	전체 순위와 점수		 소득보장		 건강상태		 역량		 우호적 환경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Costa Rica	26	64.0	51	64.6	15	73.8	49	32.0	29
Belgium	27	63.9	40	71.8	30	68.7	58	28.9	24	73.4
Georgia	28	61.3	48	65.9	60	46.2	15	53.2	45	67.1
Slovenia	29	60.1	23	78.6	38	63.2	81	19.2	7	79.2
Mexico	30	59.5	34	73.3	35	64.5	52	29.9	46	66.7
Argentina	31	59.4	17	80.1	40	59.4	35	38.0	66	61.7
Poland	32	58.1	24	77.8	48	55.3	61	27.3	37	69.2
Ecuador	33	57.9	56	62.4	28	69.2	42	34.4	58	63.4
Cyprus	34	57.8	46	67.9	24	70.7	51	30.0	55	63.8
Latvia	35	57.0	32	74.2	66	44.1	14	54.0	68	60.1
Thailand	36	56.3	58	57.9	41	59.1	73	22.6	12	78.2
Portugal	37	55.3	12	82.1	23	70.7	79	19.4	51	65.4
Mauritius	38	54.2	8	82.8	63	45.0	70	24.6	38	69.2
Italy	39	53.9	25	77.5	6	78.7	69	24.6	74	58.5
Armenia	40	53.0	30	75.6	74	34.0	9	58.9	73	58.9
Romania	41	52.8	26	77.2	64	44.9	46	33.5	64	62.0
Peru	42	52.6	65	50.7	32	68.1	24	46.0	79	56.9
Sri Lanka	43	52.6	79	34.9	54	50.0	32	43.0	25	72.9
Philippines	44	52.3	73	41.9	76	31.9	18	50.2	15	77.3
Vietnam	45	52.2	70	46.8	36	63.9	71	24.4	31	71.3
Hungary	46	51.9	35	73.1	57	47.4	53	29.4	60	63.1
Slovakia	47	51.7	21	78.8	53	51.4	36	37.0	80	56.8
China	48	51.5	72	42.1	58	46.5	38	36.2	28	71.8
Kyrgyzstan	49	51.0	54	63.5	83	28.9	31	43.0	36	69.6
South Korea	50	50.4	80	32.5	42	58.2	19	48.6	54	64.1

	전체 순위와 점수		소득보장		건강상태		역량		우호적 환경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Bolivia	51	50.3	55	62.6	59	46.4	22	46.6	78	57.1
Colombia	52	50.3	68	48.2	18	72.8	76	20.8	42	67.5
Albania	53	48.9	44	68.6	61	45.7	21	47.9	86	54.7
Nicaragua	54	48.9	77	38.0	45	57.0	59	27.7	33	70.6
Malta	55	48.4	52	64.1	20	72.1	87	14.3	47	66.4
Bulgaria	56	47.5	47	67.8	68	40.0	45	33.5	69	59.8
El Salvador	57	47.0	76	38.1	34	66.3	67	25.2	53	65.3
Brazil	58	46.3	14	80.8	43	57.4	66	25.6	87	54.6
Bangladesh	59	45.5	75	39.6	71	37.7	39	36.2	41	67.5
Lithuania	60	45.4	53	63.9	65	44.2	17	50.3	90	52.6
Tajikistan	61	45.0	57	59.0	80	31.1	40	35.0	61	63.1
Dominican Republic	62	44.4	81	29.9	39	61.0	62	26.8	43	67.3
Guatemala	63	44.3	74	41.3	44	57.0	84	17.7	34	70.2
Belarus	64	43.7	50	65.0	84	28.6	64	26.0	44	67.1
Russia	65	42.5	37	72.9	86	27.1	26	45.1	82	55.5
Paraguay	66	42.1	78	35.8	50	54.4	41	34.7	77	57.5
Croatia	67	41.7	66	50.6	49	55.3	77	20.5	72	58.9
Montenegro	68	40.9	60	56.0	56	49.1	78	19.5	70	58.9
India	69	39.0	71	44.6	87	27.0	55	29.3	52	65.3
Nepal	70	38.9	69	47.9	79	31.2	68	25.0	59	63.2
Indonesia	71	38.6	86	18.6	70	37.8	48	32.3	8	79.0
Mongolia	72	38.1	36	73.0	93	20.5	65	26.0	62	62.9
Greece	73	37.3	28	76.0	22	70.7	80	19.3	91	49.6
Moldova	74	36.2	63	51.6	90	25.8	50	31.6	76	57.7
Honduras	75	36.2	84	21.4	46	56.2	63	26.2	65	62.0

	전체 순위와 점수		소득보장		건강상태		역량		우호적 환경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Venezuela	76	36.1	67	49.8	29	69.1	60	27.4	93	49.5
Turkey	77	36.1	33	73.3	52	52.5	93	6.0	40	67.6
Serbia	78	35.4	49	65.7	62	45.3	92	9.9	67	60.2
Cambodia	79	35.2	89	16.5	51	53.3	74	22.5	27	72.2
South Africa	80	35.2	19	79.6	89	25.9	75	22.3	83	55.0
Ghana	81	34.0	87	17.8	77	31.9	25	45.9	56	63.7
Ukraine	82	31.0	43	70.2	85	27.3	85	15.2	85	54.8
Morocco	83	30.3	64	51.1	72	37.5	88	14.2	89	53.9
Lao PDR	84	30.3	85	18.7	82	29.7	83	19.0	20	75.5
Nigeria	85	25.7	90	16.3	88	25.9	47	32.3	75	58.3
Rwanda	86	23.4	92	11.5	81	30.0	89	13.8	13	78.2
Iraq	87	23.1	62	52.2	75	32.8	91	11.2	92	49.6
Zambia	88	21.1	91	13.3	91	24.7	57	29.2	84	54.8
Uganda	89	19.5	93	11.3	92	22.1	72	23.9	70	58.9
Jordan	90	17.0	59	56.6	67	43.6	95	1.6	32	70.6
Pakistan	91	12.3	95	6.0	78	31.8	44	33.9	81	56.0
Tanzania	92	10.7	94	6.1	69	39.8	86	14.6	88	54.5
Malawi	93	6.4	96	6.0	95	18.8	82	19.0	94	48.4
West Bank & Gaza	94	4.5	82	23.0	73	36.6	96	1.3	63	62.3
Mozambique	95	4.1	88	17.3	94	18.9	94	4.2	96	45.1
Afghanistan	96	3.7	83	22.0	96	7.1	90	12.0	95	47.0

2014 세계노인복지지표: 주요요약
Global AgeWatch Index 2014: Executive summary

Copyright © HelpAge International, 2014

This work is licensed under a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 4.0 International License,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Registered charity no. 288180

Design by TRUE www.truedesign.co.uk

Flickr images on pages 1 and 2 are licensed under CC BY-SA 2.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sa/2.0>

www.globalagewatch.org

